

승리제단, 세계종교영성 프로젝트 등재



승리제단이 국제 저널에 외국 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한강현 부회장은 마

시모(Massimo Introvigne) 세계신종교연구소장(Managing Director of CESNUR)이 세계종교영성 프로젝트(World Religions And Spirituality Project)에 승리제단 논문을 작성해서 등재(登載)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마시모 소장 직접 예배 참석 후 작성

10월 20일 제단을 탐방하여 예배에 직접 참석한 마시모 소장은 승리제단의 구세주 조희성님과 승리제단의 교리 및 종교적 박해, 성지 밀실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후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그는 먼저 승리제단의 설립연혁과 창교자 조희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다. 조희성은 전도관 박태선 장로님이 꿈에 오셔서 영적 안찰로 귀가 나온 후 박 장로의 전도관에 입문하여 전도사로 역할을 하였고, 훗날 해와이긴자를 통해 구세주 하나님으로 인정되었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기독교인들의 사주로 검찰에 의해 현금사기로 1차 구속되었다가 가석방된 후 재차 신도살해교사 혐의로 구속되어 무죄가



승리제단을 소개한 World Religions And Spirituality Project 한 페이지

된 후 옥중에서 보광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그는 승리제단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아들이라고 하며, 조희성을 구세주라고 하지만 신기독교(New Christian Religion)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참고: 이경우 한국 신종교연구소장은 승리제단을 한국 신종교 그룹 중 신기독교계열이라고 분류하였다) 승리제단에서는 인간 예

수의 실체를 추적한 「성혈과 성배」가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서구학계에 승리제단 소개한 첫 학자: 마시모

그는 마지막 부분에 승리제단에 대한 평가 및 과제를 적었다. 즉 승리제단에서 육체적 영성의 실현은 예교와 욕망의 완전 소멸로 가능한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승리제단

교인들은 조희성 구세주의 5대공약의 실현과 이슬성령의 현신으로 이를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썼었다.

이로써 마시모 소장은 승리제단을 서구학계에 소개한 첫 외국인 학자가 되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승리제단의 진리가 활발하게 소개가 될 것이라 믿는다. 격암유록(격암가사)에는 한국에서 성인 출현을 몰라주면 외국에서 알려준다고 예언되어 있다. *

“한국인들이 성인을 몰라보거든 서양사람들이 알린다”

格菴歌辭격암가사 예언

無疑東方天聖出(무의동방천성출)이라 若是東方無知聖(약시동방무지성) 커든 英美西人(영미서인이) 更解明(강해성)하소 若是東西不知聖(약시동서부지성)이면 更且蒼生奈且何(갱차창생내차하)호 -중략- 西氣東來上帝再臨分明無疑(서기동래상제재림분명무의) 되오리라 道神天主(도신천주) 이라하니 英雄國(영웅국)서 다오리라 東西一氣再生身(동서일기재생신) 何人善心不和生(하인선심불화생)고 印度佛國(인도불국) 米露國(미루국) 特別朝鮮報(특별조선보)라

의심할 여지가 없이 동방나라 한국에서 하늘이 내신 성인이 나오느니라. 만약 동방나라 한국에서 이 성인을 몰

라보거든, 영국, 미국 등 서양인이 다시 이 성인에 대한 것을 풀게 해 보소. 만약 동서양인 모두가 이 성인을 몰라본다면 어떻게 살겠으며 또한 구원받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중략- 서방의 기운이 동방으로 돌아왔으니 상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알게 되오리라.

진리의 신으로 오신 상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으니 열강들이 다 찾아오리라. 천하의 정기를 한 몸에 받아 거듭나시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가 되면, 어찌 사람이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합되지 않겠는가. 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의 열강들이 특별히 한국에 대해 대서특필 보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본부제단 3지역 4개월 만에 1등 개인 1등 이영애 권사



3지역 정은경 지회장이 상금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 10월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11월 7일 화요일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3지역이 4개월 만에 다시 지역 1등

을 차지하였다. 지역 2등은 4지역, 지역 3등은 2지역이다. 3지역 성적은 해외 성도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 영원한 여정 이영애 권사가 개인 1등이다. 개인 2등은 안명숙 승사, 3등은 조건우 승사다. 2등과 3등을 차지한 안 승사와 조 승사는 두 분 다 전도부 소속이다. 요즘 전도부가 제단 활성화 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윤봉수 회장은 “상금을 탄 모든 분들과 지역 및 구역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부제단 전 성도들 중에서 개인 1등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

영애 권사가 개인 1등을 했는데 거저된 것이 아니다. 열심히 뛰어서 된 것이다. 옛날에 개국공신들에 대해서 임금의 상을 주었다. 특히 일등공신은 웬만한 큰 죄를 저도 용서해주었다. 그만큼 공로가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주님께 받을 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들이 모여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치하하였다.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2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3등: 2지역(지역장: 서보묵, 지회장: 김혜선)

구역 1등: 21구역(구역장: 안명숙)
2등: 6구역(구역장: 공석)
3등: 14구역(구역장: 서보묵)

개인 1등: 이영애 권사
2등: 안명숙 승사
3등: 조건우 승사*

강릉제단 신설: 책임자 윤갑수(033-535-8254)
보광 후 강원도에 생긴 첫 제단이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바랍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20> “자유율법의 근본은 희생”

병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이 있는 사람도 ‘나’ 라는 것을 짓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심정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며 모든 병마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꽃이 피면 벌이 날아와 앉듯이 희생적인 마음이 꽃처럼 피어 있으면 성령이 그 꽃 위에 날아와 앉는 것이다. 그러나 희생적인 생활은 눈물 없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을 눈물로 살았다. 이긴자가 되기까지 그 희생의 정도는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피눈물의 결정체였던 것이다.

탄산적인 사람은 도통할 수 없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율법의 근본이 희생적인 삶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므로 독립된 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체가 된 몸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줘야 하나님도 당신의 생명을 주신다.*

행동하는 양심=조국통일=민주회복

현재의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가 말했지만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간의 대치로 더욱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더욱이 북한의 핵개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더욱 불확실성을 부추긴다.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진리를 앞에 두고서 외면하지 말고, 곤란한 문제일지라도 피하지 말고, 불확실한 신화에 기대지 말고 실체를 알아볼 것,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문제를 하나하나 창의적으로 풀어갈 것”을 강조했다. 이것을 현재의 대한민국에 대입하여 풀어보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온다.

“하는 것이 힘”이라고 프랜시스 베이컨(1561-1626)은 역설했다.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이나 사회현상, 우주 운행방식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의 습득은 그릇된 종교적 관습과 정치적 권위의 속박이나, 천재지변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능력의 표현이다. 이 또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인류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그것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왜

냐하면 ‘불확실성’의 문제는 인간과 우주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의 문제는 내 안(인간 내부와 본질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완벽하게 밝힌 분이 바로 극기승자 조희성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었던 양심이 마귀 신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불확실성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으로 하나님의 신이 마귀 신을 극복하면 불확실성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사회는 불확실성이 영속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지상천국으로 화하지 않는 한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혔다는 점에 완벽한 진리라 할 수 있다.

‘조국통일, 행동하는 양심, 민주회복’을 보통은 서로 이질적인 다른 개념으로 본다. 필자는 이것은 똑같은 뜻을 말하는 동음이의어라고 말하고 싶다. 즉 인간 속 ‘나’라는 주체의식의 마귀 신을 완전히 죽이고 100% 양심을 회복하여 극기승자로 거듭난 상태를 사회적 의미를 담아서 풀어낸 말이라고 생각한다. 인내천으로 다시 원시반본함이 조국통일(하늘나라 회복)이요, 본래의 주인 된 하나님 마음, 온전한 양심을 되찾는 것이 민주회복(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행동하는 양심 그 자체가 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안병천 / 승리제단 기획부장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부산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